한·중(韓·中) 공동 중국 기생충관리사업, 성공적으로 진행 중

KOICA의 지원받아 한국건강관리협회, '95년부터 시작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신기복)의 지원을 받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임한종)가 '95년부터 시작한 한·중 공동 중국기생충관리사업이 올해로 3년째를 맞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94년 11월, 우리나라와 중국 위생부가 한·중 간의 전염병관리 및 기생충관리 분야의 교류 촉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기생충관리 공동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전개키로 합의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첫해인 '95년 5천 2백만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96년 5천4백여만원, '97년 1억 1천 6백여만원 등 지금까지 2억2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중국 예방의학과학원에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중국 현지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를 위한 검사·진료·투약, 중국 학자들의 우리나라 기생충관리 현장 및 성공사례 견학과 기술교육, 워크샵 개최, 기자재·약품 공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특히, KOICA의 해외지원사업 중 최초의 의료지원이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갖고 있는데, KOICA가 중국의 기생충관리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왕래국 간의 기생충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인접국가 간의 상호 협력하에 중국의 기생충 예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업을 통한 양국간의 우호 증진과 제반 국제교류의 활발한 진행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95., '96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양국의 정부관계자 및 관련 학자, KOICA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과 중국 기생충병연구소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해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종 회장을 비롯한 기생충 관련 학자와 중국 기생충병연구소 연구원 등이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의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6월)를 공동으로 실시해 중국 기생충 감염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 실태조사 결과와 우리 나라의 기생충 관리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크샵을 개최해 양국의 향후 공동 기생충관리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97년에도 4회에 걸친 현지 조사활동과 연수가 있을 예정인데, 50여명의 양국 관련자들이 기생충관리 요령과 보건계몽 방안 교육, 기생충 검사 실습, 워크샵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KOICA는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와 복지증진, 긴급재난구조, 경제사회개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정부 민간단체(NGO)회원과 합동으로 각국의 복지 현안에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NGO회원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대한적십자사, 경희의료원, 한국복지재단, 한국선명회 등을 비롯한 3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한·중 공동기생충관리사업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앞으로 중국의 보건관리, 더 나아가 범세계적인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5회 보건의 날 수상자 명단

건협 대구지부 이회봉 사무국장과 전북지부 남상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 4월 7일, 제 25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 대통령 표창 : 이회봉·남상도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장상철(경기지부 부장), 김중하(부산지부 서무과장),윤희동(제주지부 서무과장),임순철(서울지부 대리), 문창수(경북지부 대리), 하동식(경남지부 대리)
- 시장·도지사 표창:김용망(대전중남지부 건강증진과장), 김홍창(대구지부대리), 송현숙(경기지부대리), 오근택(중북지부대리), 강미경(광주전남지부대리), 김기진(경남지부대리), 송태근(부산지부주임)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종 회장 논제집 헌정식

정년퇴임 기념으로 고대 기생충학교실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종 회장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년 퇴임을 기념하기 위한 논제집 헌정식이 지난 3월 26일 신라호텔에서 있었다.

1957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을 기생충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해 온 임회장은 197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고려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 창설, 고대기생충학교실 활성화, 간흡충 치료제개발 등 우리 나라 기생충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제자와 후배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임회장은 특히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다양한 연구활동과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259편의 연구 논문과 40편의 국제학회 발표 논문 등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헌정식에는 고대의료원 관계자들과 기생충학교실 교수, 학생 및 동문, 고대의대 열대풍토병연구소 직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정년 퇴임 후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하는 임한종 회장을 축하해 주었다.

실태조사단 지도점검 실시

건협은 지난 4월 22일부터 제6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5월 9일까지 실시될 이 지도점검은 건협 임한종 회장, 성정웅사무총장, 보건복지부 박기준 보건정책과장, 가톨릭의대 조승렬 교수, 고려의대 이준상 교수 등을 비롯한 기생충 학자, 건협의 실태조사실무반원들이 참석하여, 각 지역의 실태조사 현장을 돌아보고 조사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인천지부, 저소득주민 무료 암검사

인천지부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저소득층주민 대상의 무료 암 검사를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인천시후원으로, YMCA갈산·삼산·만수 사회복지관에서실시된 이번 무료검진에서 30~65세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간암·대장암·췌장암·위암(남)·전립선암(남)·유방암(여)·난소암(여)·갑상선암(여) 등의 암검진이 이루어졌다.

충북지부, 음성군 저소득층주민 무료 검진

충북지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음성군내 생활보호대상자 4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고혈압·당뇨·간질환·신장질환·혈액질환·갑상선질환·자궁암·간암 등 8개 질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대전충남지부, 골다공증 무료 검진

대전충남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여성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있다. 대전 시민중 저소득층 여성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인 이 무료검진은 무증후성 질병인 골다공증의 조기발견을 위해 마련되었다.